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시도, 목적은 음모론에 기반한 통합선거인명부 탈취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군은 국회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표 이후 무려 300명 가량의 군인들이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연수원으로 나뉘어 출동했던 배경과 목적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6일,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괴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었습니다.

첫째,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선관위의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선관위 2층의 전산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상) 이들은 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선관위 근무 직원에게 신분과 소속,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CCTV상 이들(6명 중 3~4명)은 전산실에 30여분가량 머무르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했고,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서버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 촬영은 22시 43분 통합명부시스템 서버가 대상이었습니다. 통합명부시스템은 선거 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22시 45분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를 촬영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23시 45분 통합스토리지 서버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계엄군이 왜 이같은 서버 사진을 촬영했는지는 선관위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엄군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촬영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오랫동안 극우 보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 선거’ 꾀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둘째, 이같은 의심은 전산실 내부를 장시간 둘러보는 계엄군이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장면에서 더욱 굳어집니다.

대체 이 군인은 누구에게 선관위 전산실 내부 상황을 보고한 것일까요? 어떤 지침을 받았을까요? 이 통화는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여야 합니다.

셋째,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시점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약 5분 가량 빠른 것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가 기존 보고했던 계엄군 도착 시간은 선관위 외곽 CCTV에 기반한 22시 33분이었으나,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된 계엄군의 전산실 진입 시각은 22시 31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시간 차이에 대해 선관위는 외곽 CCTV의 시간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내부 CCTV의 시간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표는 22시 23분 시작되어, 29분 종료되었습니다. 전산실 진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통령 계엄 선언 발표 종료 2분만에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이 위치한 2층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언이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엄 선언 이전부터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지시하고 준비시킨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다른 무엇보다 앞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장악하려 한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 자체도 충격적이고 또 충격적이지만, 계엄 선언 이전부터 선관위 장악과 서버 침탈이 계획되었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입니다.

선거제도와 국가기관을 악용하여 음모론을 현실화하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켜 온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반헌법적 폭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반헌법적 폭거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4.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 일동

□ 별첨.

- 계엄군, 사전선거명부 관리 시스템 서버 사진 촬영
(22시 43분 49초)



- 계엄군, 선관위 행정 시스템 서버와 선관위 보안시스템 서버 촬영
(22시 45분 49초)



○ 계엄군, 외부망과 연결된 통신장비 서버 촬영
(22시 45분 47초)

